

한파에... 고흥서 돌돔 25만마리 동사

수온 평년보다 2도 낮아 양식장 피해... 수산과학원 비상체제 가동

최근 추위로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고흥의 한 양식장에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폐죽음을 당하는 등 한파 피해가 잇따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이 여수 남서해수산연구소와 경남 통영 남동해수산연구소에 비상체제 가동을 지시했다.

15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도양읍 가두리 양식장에서 돌돔 20만~25만 마리가 동사한 것으로 보고 폐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올 겨울 들어 전남 인근 해역에서 물고기가 동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일대 바다의 수온은 6~7도로 평년보다 2도 가

람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남도는 저수온에 약한 돌돔 등 양식 어민들에게 수온 유지와 사전 출하 등으로 피해를 줄여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한파로 인해 경남 통영에 있는 양식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고흥에서까지 한파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동해수산연구소와 남서해수산연구소는 비상체제를 가동, 양식장 주변 바다의 수온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양식어업인과 유관기관에 제공해 대응하도록 예정이다.

남해안 양식장 주변 해역의 수온 변화를 관측한 결과 여수 연안의 평균 수온은 6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부터 평년에 비해 2~3도 낮은 저수온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해도~거제도 해역의 수온도 평년에 비해 1.9도 낮게 나타났다.

문제는 이달 중순과 하순에도 이들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은 분포를 보이는 등 남해안의 저수온현상이 다음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겨울철 저수온에 신속하게 약한 돌돔이 해상가두리에서 많이 양식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돌돔의 겨울철 생존 하한수온은 5~7도로 다른 양식어류에 비해 저수온에 의해 폐사되기 쉽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온도 변화에 민감한 양식 어류는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소화 등 생리기능이 떨어진다”며 “7도 이하의 수온이 계속되면 추위에 약한 돌돔과 쥐치류를 중심으로 집단 폐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여수와 통영 등 남해안에서 1월 중순 이후 5도 이하의 저수온이 15일 정도 지속돼 양식생물의 대량폐사가 발생하면서 1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났다.

/고흥=주각종기자 gjiu@



14일 신안수협 흑산지점 직원들이 위판장에서 ‘겨울 별미’인 흑산 홍어를 위판하고 있다. 위판 가격은 8kg 이상 암컷 한 마리에 40만원이다. /연합뉴스

흑산 홍어잡이 어민 ‘겹주름’

어획량 줄고 소비부진 가격 떨어져

흑산 홍어잡이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본격 조업철을 맞이하고도 홍어가 잘 잡히지 않는 데다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값마저 하락했기 때문이다.

15일 신안수협 흑산지점 위판 가격은 8kg 이상 암컷 한 마리에 40만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만~8만원 하락했다. 설을 20여일 앞두고 한창이어야 할 때에 주돈도 별로 없다. 예년 같으면 하루 평균 200건 이상인 주문이 3~4건에 이를 정도다.

어획도 신통하지 않다. 흑산 해역을 중심으로 조업하는 홍어잡이 어선 7척이 최근 3~4일 조업

에 1억원여치를 잡을 정도로 어획이 부진하다. 예년 같으면 2억원이 넘었다.

흑산지점 박선순 유통과장은 “해경의 중국어선 단속으로 홍어 주낙 손상 피해가 크게 줄면서 조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어획이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신선한 회로도 먹지만, 사해 먹을 때 코끝을 찌는 특유의 맛을 내는 흑산 홍어는 ‘황산 콘드로이틴’이라는 물질이 다량 함유돼 관절염, 기관지 천식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흑산 홍어는 7척의 어선으로 매년 3만8000마리를 잡아 40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신안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여수, 우수인재 양성 180억 투자

명문고 육성·영재학교 등

여수시가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명문고 육성,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1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15일 “해마다 70~80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물론 지난해부터 관내 모든 초·중학교에서 무료학교급식을 실시하면서 연간 100억원이 투입돼 올해에는 교육 관련 예산이 18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고교 인제 스쿨, 영재 겨울학교, 고교 통합 논술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장학금 지급, 관내 고·중·초·고교 등에 집중 배정했다. 군은 이 같은 교

육 분야 집중 투자에 힘입어 서울대 수시합격인원이 지난해 3명에서 올해 7명으로 늘고 중학교 3학년 학생 타지역 유출 인원도 지난 2011년 384명, 2012년 286명, 올해는 225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올해도 학생들의 자기진작을 위한 장학금 지원에 11억원, 명문고 육성 등 고등학교 학력 신장과 기능 영재 양성에 18억원, 고교 인제 스쿨 등에 6억원, 교사 자기진작 등에 6억원을 들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정착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지역 교육여건을 믿고 신뢰하는 풍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문택기자 mtlim@kwangju.co.kr



‘천개 감사의 글’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은 14일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천개 감사의 글’을 액자로 제작해 광양시에 전달했다. ‘천개 감사의 글’은 지난해 12월부터 한달간 1000여명의 포스코 직원들이 작성한 것을 모은 것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새해 새 설계

정기호 영광군수

“대마산단 우량기업 유치 주력”



굴비 등 지역특산품 육성

철산·영광대교 건설 박차

KTX연계 투어상품 개발

“달리는 맑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불정제(馬不停蹄)의 정신을 새기면서 더욱 더 도전적이고 열정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15일 “지난 한 해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법성포 단오제의 국가중요문화재 지정, 대한민국 도시대상과 스포츠 산업대상 수상 등 보람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자평하고 “올해 군정목표를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에 두고 그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중점 시책으로 ▲건설한 기업도시 건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관광·스포츠산업 활성화 ▲SOC지속적인 확충과 균형발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 ▲현장중심 맞춤형도시건설 ▲군민안전과 열린행정 구현 등을 꼽았다.

정 군수는 우선 지금까지의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한 기업도시 건설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과 송림 그린테크단지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책산업 선점을 위해 개인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 산업 실용화 기반센터의 설립과 해상풍력 테스트 베드 조기 구축에도 나선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예특작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선진농업인 교육과 강소농 육성, 원예농산물의 산지유통체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 보리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 개발과 축산물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굴비, 모시임송편, 천일염, 민물장어 등 지역특산품의 육성에 도 노력하기로 했다.

그는 “영광의 9경·9미·9품을 새롭게 선정해 볼거리와 먹거리, 살거리를 갖춘 특색 있는 관광콘텐

츠를 만들고 KTX와 연계한 투어상품 개발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홍농~백수 간 철산대교, 염산~무안 도로포장 간 영광대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 사업인 백수~염산 간 도로, 법성~홍농 간 4차선 확·포장사업도 추진한다.

정 군수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영광을 시가지 가로시설물을 종합 정비하고 영광군 기반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세련되고 품격 높은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며 “도심권 생활주변과 도로·가로변을 연결한 푸른 도시 숲을 조성하고 영광산림박물관과 불갑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원전이 자리하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민들이 언제나 마음 졸이며 살고 있는 만큼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 설립과 지역방사능 방재센터 건립 등을 통해 원자력 관련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다.

정기호 군수는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며 “모든 공직자는 기본에 충실하며 내실을 다지는 가운데 미래 지향적인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무안 ‘보장구 은행’ 운영

흑두루미 서식환경 좋아진 순천만

매년 개체수 늘어 올 660마리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두루미류는 흑두루미 660마리, 재두루미 27마리, 검은목두루미 6마리 등 3종 693마리로 관찰됐다.

순천만의 두루미류 개체수는 지난 2009~2010년 452마리,

2010~2011년 525마리, 2011~2012년 661마리, 올해 현재 693마리 등 계속 증가 추세다.

10여년 전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는 100여마리에 불과했었다. 순천시는 철새 먹이주기, 철새 보호구역 출입통제, 순천만에 대한 비행 회피 공간 지정, 무늬습지 조성, 내륙습지 복원 등 철새 서식지 환경 개선을 위한 철새보존정책을 시행 중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무안군은 15일 “매우연한 경과 또는 사용자 사망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보장구를 기부받아 이를 수리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기부하는 장애인보장구 은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장애인 보장구 전수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벌여 고장 난 보장구를 수거 후 수리해 3월부터 필요한 장애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동스쿠터 188명, 전동휠체어 40명, 수동휠체어 37명, 보청기 등 370여 명에게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한 바 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축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축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축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동시간: 1130~2200)

- 평 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외벽 시공사진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